불자 세상보기

초심을 잃지 않는 삶이란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셋 있다고 한다.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다. 난 사람은 이름이 '난 사람(famous man)'이다. 이른바 유명한 사람이다. 든 사람은 알 거리가 머리에 '든 사람(knowledge man)'이다. 지식인이다. 된 사람은 인격이 완성 '된 사람(enlighten man)'이다. 인격자이다. 불교에서는 깨달은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 셋은 나눠서도 하나하나 그 자질이 좋게 느껴진다. 그런데 합쳐진다면 더 좋을 것이다.

물론 셋이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대개는 든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남들 앞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잘하고 매체에 글을 써서 설득을 하고 환호를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기에 이해가 된다.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된 사람이 나는 것이다. 인격이 좋아도 이름나지 않을 수 있고 이름은 났는데 인격을 살피면 고개를 갸웃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된 사람이 난다면 참 좋겠는데 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요사이 난 사람에 해당하는 배우, 가수 등 연예인들이 이런 저런 일들로 사람들의 입살에 오르내리며 눈총을 맞고 있다. 흔히 말하는 한류를 선도하던 아이돌 가수로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재판을 기다리는 이, 남의 사람과 사랑하는 배우, 도박중독에 빠져 해외를 넘나들며 엄청난 돈을 해외에 버리다시피 한 사람 등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서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좋아하거나 따르는 이들에게마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도 활발한 작품 활동에 더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 벌어들인 돈을 좋은 곳에 쓰게 하는 연예인들도 매우 많다는 사실이 우리를 조금은 안심하게 한다. 그들 가운데 우리와 가까운 불자 연예인들이 많은 것도 기쁨이다.

예능 치트키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불자가수회장을 역임한 영원한 해병, 영원한 불자인 59년 왕십리의 김흥국 거사는 20여년 가까이 수많은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격려하고 있다. 그의 학생 사랑, 불교 사랑, 축구 사랑, 해병대 사랑은 이미 이름이 널리 나 있다. 필자도 몇 차례 장학금 수여행사에 참석해 축하하고 장학 대상을 소개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

의리맨으로 알려진 불자 배우 김보성은 자신이 출전하는 격투기 대회 대전료를 모두 소아암 환우를 위해 기부하고 있다. 알다시피 격투기 대회는 대회 때마다 다치고 잘못하면 심각한 부

불자 연예인 잇단 선행 '귀감'

모든 이가 나의 형제임을 알라

상을 당할 위험도 있는 경기인데 그 경기의 수익금을 남에게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칭찬해 마땅하다.

독실한 불자로 잘 알려진 가수이자 배우 김민종도 오는 8월에 개봉하는 불교 다큐 영화 '브링 홈:아버지의 고향'에서 나레이터로 참여했다. 자신의 개런티 전부를 티베트 난민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티베트이야기는 만나는 이들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울컥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저 나 좋아하는 일 하고, 나 잘하는 일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갈 뿐인데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슬프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현대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은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요구받고 있다. 자유를 조금 덜 쓰면서 난 사람으로서의 이익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가 하고 생각하면 견뎌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세상 그 어떤 중생도 전생에 너(나)의 형제 아닌 이가 없었다"고 하는 〈앙굴마라경〉의 가르침과 똥꾼 니다이에게 서슴치 않고 다가섰던 부처님 따라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선행을 하는 불자연예인들의 선행은 그야말로 '마음을 맑히는 보배 거울(明心寶鑑)'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자리에 걸 맞는 마음, 말, 행동 즉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삶이다. 더 많은 유명한 이들이 유명해지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좋은 일에 나서서 그를 바라보는 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그들도 따라하면서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기자 칼럼

'풍전등화' 수행환경… 종단·사찰 힘 모아야



박아름
취재부 기자

요즘 사찰 수행환경이 '바람 앞의 등불' 처럼 위태롭다. 난개발로 인한 수행환경 침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개발공사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걸려오는 스님과 신도들의 제보 전화가 봇물 터지듯 이어진다.

부산 해운정사는 경내 앞 바로 10m 거리에 40층 고층 아파트가 건설 중이다.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로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지만, 완공 후 사찰의 조망권 침해도 큰 문제다. 그러나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민의 입장도 배제할 수 없어 해운정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재개발'을 촉구하는 선에서 도량 수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부산 청량사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시행-한국수자원공사 · 부산도시공사 · 부산시)'으로 인해 사찰 전체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일주문 · 지장전 · 해우소 및 경내 앞마당까지 공사 부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청량사는 '수행환경수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중단 운동이라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본지로 걸려온 제보전화 중에는 약 18년 간 국가기관에 의해 사찰 부지를 무단점유 당한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다. 대전 극락정사 종교부지에 설치된 대전소년원의 12m 장벽이다. 대부분의 수행환경 침해 사례처럼 개발공사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큰 장벽 앞에 주지스님의 고민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스님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한 안전평가서 장벽 상태가 위험하단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주지 지운 스님은 "대전소년원이 경내 부지를 침범해 12m 장벽을 설치했다. 18여 년 전부터 법무부, 청와대 할 것 없이 민원을 넣고 있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며 본지에 호소해왔다. 대전소년원 측에 확인해보니 "18년 전 장벽을 설치한 공사업체 측이 측량 조사를 잘못해 벌어진 일이다. 담장을 다시 옮겨 설치하려해도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내년 예산 배정 결과에 따라 재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 밝혔다. 하지만 대전소년원 측의 이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쉽사리 마음을 놓을 수 없다. 18년 동안 수차례 같은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삼척 안정사, 성남 봉국사 등 전국 곳곳 사찰이 개발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몇 달 새 드러난 사찰 수행환경 침해 건만 해도 한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조계종단에선 사회부 환경위원회가 수행환경 침해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그러나 각 지역별 개발계획 마다 이해관계와 특수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자문 · 관련기관 항의 공문발송 등에 역할이 한정된다.

조계종 사회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구본사별 사회노동환경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사회 · 노동 · 환경 현안에 대해 각 지역마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별 전문기구를 구성, 전문 ·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단 취지다. 지난달 설악산 신흥사가 처음으로 사회노동환경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올 하반기 내 월정사 · 해인사 · 법주사 · 직지사 총 5개 사찰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사실 과거에도 몇몇 교구본사에 '환경위원회'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직접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이 전무했고 명맥만 유지됐다.

사찰 수행환경 침해가 '남의 절' 일이란 안일함서 벗어나야 한다. 내 절 앞마당에 내일이라도 당장 도로가 들어설 수 있다. 사찰 수행환경 수호가 불교계 전체의 '공동과제'임을 직시하고, '말사-본사-종단'이란 공동대응시스템이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社說

표심 지원 없이 불심만 호소해서야

20대 국회 정각회가 7월 13일 출범했다. 7월 7일 집계한 바에 따르면 36명의 의원이 입회한 상황이다. 정각회 회원이 40명 아래로 내려온 것은 14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매 기수별로 줄고 있다.

원인을 살펴보면 명쾌하다. 지난 19대 정각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채 20명이 되지 않는다. 불자의원 수가 6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초선의원들의 가입이 저조한 것이다. 문제는 무엇일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역구 상황을 고려해서라고 한다. 여기서 지역구 상황은 다른 종교를 가진 유권자들로 인한 것이다. 불자의원들이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동안 기독교계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조찬기도회는 100명을 넘어서고, 가톨릭신도회까지 합치면 150명을 넘는다.

불교계 인사들은 이런 상황에도 자발적인 신행단체이고, 종교편향 논란이 일기에 불교계에서 지원하기란 어렵다고 말한다.

해답은 무엇일까. 유권자인 불자들이 불자의원들을 챙기는 수 밖에 없다. 18대 정각회 당시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활동이 그것이다. 당선인 축하연을 비롯해 고문과 부회장 위촉 등으로 16대 이후 평균인 40명을 훌쩍 넘는 59명이 가입을 하고 활동했다. 최근에는 불교포럼을 비롯한 불자네트워크 모임도 만들어진 만큼 이에 대한 관심도 불자들이 가져야 한다.

국회 정각회는 불교관련 법령을 입안하고 제 · 개정하는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에서 불교세가 유지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선거에서 불자의원들을 후원하지 못했더라도 이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헌국회에서 불교계는 120여명의 불자의원을 배출한 최대 종교였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불교는 3등 종교로 전락했다.

국회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불교세를 높이는 일은 바로 우리 불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달라이라마 방한, 불자 마음모으자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가 7월 2일 공식 출범했다. 2013년 12월 달라이라마방한 준비위원회 발족 후 2년만이다.

중국의 탄압을 피해 1959년 인도로 피신한 달라이라마는 반세기 넘게 세계를 다니면서 불교의 자비와 평화사상을 전했다.

탁월한 식견을 통한 가르침에 서구인들은 곧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에 매료됐고, 1989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방문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에는 30여 차례나 다녀갔고, 법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달라이라마는 한국에 방문하지 못했다. 2000년부터 방한이 추진됐지만 성사 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한국정부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의식해 비자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달라이라마의 이번 방한의 성공여부도 모두 정부의 입장에 달렸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수행자로서, 평화와 화합의 길을 실천해온 종교인으로서 불자들에게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종교인의 사적 방문을 우리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제라도 정부가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전격적으로 허용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위해 전 불자와 종단이 나서서 방한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